

자료제공 : 2024. 7. 22.(월)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02-2133-7660

감염병관리팀장

노재규

02-2133-7669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6쪽

관련 누리집
(메뉴)

-

서울시, 7.22 강서구 '말라리아 경보' 발령... 강서구 군집사례 추가 발생 신속 조치

-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6.18.) 이후, 양천구(7.9.) 경보 발령, 강서구 추가 경보
- 확산 방지 위해 강서구 주민 안전문자 발송, 매개모기 집중 방제, 보건소 진단검사 지원
- 시, 7.24. 말라리아 매개모기 효율적 방제 위해 방역담당자 '현장실습 교육' 진행
- 시민, 예방수칙 준수, 말라리아 의심증상시 보건소·의료기관서 신속한 검사 당부

* 군집사례 :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의 환자의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이고, 거주지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

- ☐ 서울시는 강서구에 2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군집사례로 발생했음을 확인하고 7월 22일 오전 9시 강서구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시는 지역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진단검사를 안내하고, 집중 방제·교육을 실시한다.
- ☐ 7.22. 강서구 말라리아 경보는 지난 7월 9일 양천구 말라리아 경보 이후, 두 번째 경보다. 서울시는 양천구의 군집사례 환자가 발생한 지역과 인근 경계 지역인 강서구에서 2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 2개구에 걸쳐 군집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강서구에도 신속하게 경보 조치한다고 밝혔다.
- ☐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의 환자의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이고, 거주지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 ‘말라리아 경보’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거나, 매개모기 하루 평균 개체수가 시·군·구에서 2주 연속 5.0 이상인 경우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내려진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6월 18일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 매개모기 일 평균 개체수(TI)란, 하루에 한 대의 트랩에 채집된 모기의 평균 수로, 1개 트랩에서 매개모기 5마리 이상이 2주 연속 발견됐을 때 경보를 발령한다.
- 서울시는 강서구 군집사례 환자들의 추정 감염지역과 해당 지역 모기 서식 환경, 거주지 점검, 공동노출자, 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말라리아 확산 방지를 위해 강서구에서 지역주민에게 문자 발송, 지역 의사회·약사회를 통한 홍보와 함께, 매개모기 집중 방제,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진단검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시민들은 발열, 오한 등의 말라리아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보건소에서 혈액을 이용한 신속진단검사를 받아 말라리아 감염 여부를 즉시(30분) 확인할 수 있다.
- 말라리아 초기증상은 두통, 식욕부진, 오한과 고열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삼일열말라리아의 경우 48시간 주기로 오한, 발열, 발한 등이 반복되는 특징이 있다.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간활동을 자제하고 모기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말라리아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올해 신고된 국내 말라리아 환자(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잠정통계)는 7월 20일 기준 307명이며, 이 중 서울지역 환자는 58명(19%)이다. 서울시는 환자들의 회복과 감염 차단을 위해 매일 치료제 복약을 확인하고 공동노출자를 대상으로 증상 발생시 신속진단검사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환자 거주지 주변 매개모기 방제를 집중 실시하고 있다.

- 아울러 서울시는 장마철 이후 증가하는 말라리아 매개모기를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7월 24일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담당자를 대상으로 ‘방역 현장 실습 교육’을 실시한다.
 - 국내 말라리아(삼일열) 잠복기의 특징상 장기잠복기 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마 이후 7~10월의 매개모기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
(단기 잠복기 7~30일, 장기 잠복기 약 330일)
 - 또한 축사가 많은 농촌과 달리 도심의 말라리아 매개모기는 주거지 인근 공원 또는 아파트 조경수에 주로 은신하는 특성이 있어 매개모기가 은신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를 찾고 잔류효과가 높고 식물에 분사가능한 살충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실습 위주로 교육할 예정이다.

-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말라리아 확산 방지를 위해 방제와 예방,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은 말라리아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특히 위험지역*(서울시 13개 자치구) 거주자 또는 방문자는 말라리아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등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말라리아 위험지역: 종로,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강동

붙임 1	말라리아 특징 및 매개모기 감시현황
------	----------------------------

☐ **말라리아 특징**

정 의	• 열원충속에 속하는 원충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
원 충	• 삼일열원충, 열대열원충, 사일열원충, 난형열원충, 원순이열원충
감 염 원	•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얼룩날개모기속에 속하는 암컷 모기에 의해 전파
전파경로	• 열원충에 감염된 암컷 얼룩날개모기가 인체를 흡혈하는 과정에서 전하 • 드물게 수혈이나 주사기 공동사용에 의해 전파 • 사람간 직접전파는 발생하지 않음
잠 복 기	• 일반적으로 7~30일 • 삼일열원충, 난형열원충의 재발은 모기에 물린 후 몇 달 또는 몇 년 후에 발생할 수 있음
임상증상	• 초기증상은 두통, 식욕부진, 오한과 고열이 나타나고 체온이 상승하여 심하게 춥고 떨리는 증상이 나타남 • 삼일열말라리아의 경우 48시가 주기로 오한, 발열, 발한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남 • 중증인 경우(주로 열대열말라리아) 황당, 응고 장애, 신부전, 간부전, 쇼크, 의식장애나 섬망, 혼수 등의 급성뇌증이 나타남
치 사 율	• 국내 삼일열말라리아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되며 사망사례는 거의 없음
진 단	• (확인진단) 검체(혈액)에서 도말검사로 말라리아 원충(충체) 확인, 검체(혈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추정진단) 검체(혈액)에서 특이 항원 검출(신속진단키트 포함)
치 료	• 말라리아 원충 종류, 여행지역에 따른 내성 현황을 고려한 적절한 약제 선택

☐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 현황(유문등)**

-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얼룩날개모기류’는 6월2주부터 포집

(단위: 마리)

구분	합계	빨 간 집모기	얼룩날개 모 기 류	작 은 빨간집모기	흰줄숲모기	*기타
		(웨스트나일열)	(말라리아)	(일본뇌염)	(덴기열, 치쿤구니아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4월	214	200	0	0	0	14
5월	858	645	1	0	1	211
6월	1주	331	274	0	1	56
	2주	421	329	3	4	85
	3주	484	406	10	1	67
	4주	798	670	68	2	58
7월	1주	801	663	26	0	112
	2주	487	420	10	3	54
	3주	560	437	22	14	87
합계	4,954	4,044	140	0	26	744

* 기타 : 줄다리집모기, 반점날개집모기, 동양집모기, 한국숲모기, 금빛숲모기, 등줄숲모기, 토고숲모기, 큰검정들모기

□ 배경 및 필요성

- 말라리아 환자 신고 추이('24.7.20. 기준)
 - 6월 들어 본격적으로 환자 발생 (국내 58/ 해외유입 6)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20일
전국	330	5	2	10	17	75	121	100
서울	64	2	1	1	1	11	30	18

- 국내 말라리아(삼일열) 잠복기의 특징상 장기잠복기 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마 이후 7~10월의 매개모기 방제가 매우 중요
 - 단기 잠복기 7~30일, 장기 잠복기 약 330일
- 도심지의 특성과 말라리아 매개모기의 생태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방제방법(장소, 약품 등 선정) 실습교육 필요

□ 교육개요

- 교 육 명 : 말라리아 매개모기 방역 현장실습 교육
- 일 시 : '24. 7. 24.(수) 16:00 ~ 17:30
- 장 소 : 강서구 공암나루근린공원
- 교육대상 :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제 담당자 및 현장 방역요원(구별 2명씩)
 - 강서, 마포, 은평, 종로,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중랑, 광진, 강동, 양천, 구로
- 주요 교육내용
 - 살충제 안전취급 관리방법(개인보호장비 착용 등)
 - 말라리아 매개모기 생태특성에 맞는 방제요령(살충제, 장소, 적용방법)
 - 매개모기 은신처 조사방법, 살충제 희석 및 잔류분무 방제 조별 실습
 - 질의 및 응답

말라리아 매개모기 생태특성

- (휴식기호성) 가축(소, 말, 돼지 등)과 사람 → 축사가 거의 없는 도심에서의 주 흡혈대상은 사람
- (휴식습성) 흡혈장소 주변 옥외(풀숲 등) 휴식 → 공원, 공동주택 조경수 등 습도가 유지되는 장소
- (흡혈시간) 야간 흡혈(22~04시 활발) → 공간살포보다는 잔류효과 높은 잔류분무방법 효율적

